

무학대사가 조선 도읍지에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고양-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고 12m
흉고둘레 9.3m
수령 693년
(2024년 기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4
37° 39' 15.18" N
126° 48' 29.04" E



고양시의 대표 보호수(고양-1) 느티나무는 마을의 끝자락과 밭의 언저리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무나이는 69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2m 정도이다. 가슴높이둘레는 930cm, 밑동둘레는 외과수술부문을 포함하여 1,300cm 정도이다. 느티나무는 원줄기 2.5m 높이에서 크게 2줄기로 갈라져 있으며, 밑동이 아주 뭉뚝하다. 나무갯은 너비 18m 정도이며 사방으로 퍼진 모양이지만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위치에 따라 나무모양이 각기 다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조선 도읍지를 찾아 한양(옛날의 서울) 일대를 누볐던 무학대사와 관련이 깊다. 무학대사는 700여 년 전에 이성계의 명으로 새 도읍지로 정할 곳을 찾아다녔다. 북한산 아래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닐 때에 고양시 풍산동(이전의 산향동) 일대를 눈여겨보고 나무 3그루를 심었다. 그 중 2그루는 말라 죽었고 살아 남은 한 그루가 이 느티나무이다. 그 외의 전승 이야기도 있다. 한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하여 느티나무 둘레를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옆으로 뻗은 주요 가지를 자르려고 하자 멀쩡하던 톱이 부러지고 손을 다쳤다. 일반적으로 전승하는 이야기로서 나뭇잎이 나올 때에 위쪽보다 밑쪽에서 먼저 나오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을 맞이한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평안을 비는 제를 올렸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년 전에는 마을 인근의 대형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합심하여 느티나무와 산황산 숲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